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 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총 회 장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위령의 날 (11/02) 미사 안내

미사 시간	06:30, 10:00, 19:00
-------	---------------------

※ 위령의 날에 봉헌되신 모든 연령들은 당일 모든 미사마다 봉헌됩니다.

● 알 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11월 6일)는 평신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11월 9일(수) 저녁 8시 본당 임원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 11월 11일(금) 병자영성체(봉성체)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0시 40분 시니어 아카데미가 강당에서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11월 5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은총
 1.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은총을 받음.
 2. 지옥에 떨어질 영혼 구원(파티마 성모님 말씀).
 3. 전쟁 막고 세계 평화 가져옴.
 4. 전대사 은혜 (고해성사, 영성체, 보속행위).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성체분배자회	10월 30일(일), 교종미사 후	성체 조배실
제대회	11월 1일(화), 10:30	2교실
성모성심회	11월 5일(토), 20:00	강 당
위령봉사회	11월 6일(일), 11:40	강 당
M.E.	마재 성지 순례	

● 청소년 후원회 모임

- 일 시 : 11월 12일(토), 오후 5시
- 장 소 : 채선당 (☎ 865-5633 / 대림점)
- 대 상 : 청소년후원회 회원, 사목위원, 청소년 사목 후원을 위하여 뜻을 함께하실 모든 분
- 문 의 : 이계명 다니엘 회장 (010-5335-2236)

※코로나19 이후 첫 만남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 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9월 30일 현재 ₩15,380,000 납부되었습니다.

● 첫갈 수령 안내

- 첫갈 수령 : 오늘 06:30~13:30 본당 앞마당
- 연락처 : 010-8651-4375

● 구삼 청년 식사 잔치 초대

- 일 시 : 오늘, 교종 미사 후
- 장 소 : 구로3동 성당 강당, 식당
- 티 켓 : 1장 5,000원
- 메 뉴 : 설렁탕, 수육, 주류, 각테일, 안주등
- 문 의 : 정상범 야고보 010-7275-4253

● 다음 주일(11/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5구역	청 소	3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0월 19일 ~ 10월 25일)

교 무 금	6,620,000원
주일헌금	4,263,000원
전교주일 2차 헌금	1,586,000원
감사헌금	황정후10만원 우순애10만원 이두남30만원 박옥연 5만원 정영자 1만원

● 교종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0/30	임종남	도현만 장희석	신광수 한인혜
11/6	손진희	심재순 김진수	최웅조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0/30	장인홍	최승일	이계명	이운영 최창열
11/6	박승환	최창열	손상민	이계명 최승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24. 친절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이따금 스며들어 있는 잔인함에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불안감에서, 다른 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무시하는 부주의한 성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다른 이들을 친절하게 대할 겨를도 여력도 찾기 힘들고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친절한 사람의 기적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걱정거리나 긴급한 일들을 제쳐두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미소를 선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만연한 무관심 가운데에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오해를 극복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친절의 실천은 부차적인 것도 아니고 피상적이거나 부르주아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친절은 존경과 존중을 전제로 하기에 친절이 한 사회 안에서 문화가 될 때, 생활양식과 사회관계도 그리고 생각들을 논의하고 비교하는 방식도 깊이 바꾸어 놓습니다. 친절은 합의의 모색을 촉진하고, 서로를 이어 주는 모든 가교가 적의 때문에 무너져 버린 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줍니다.

제7장

새로운 만남의 길들

225. 세계 곳곳에서, 상처들의 치유로 이끄는 평화의 길들이 필요합니다. 독창적이고 담대하게 치유와 새로운 만남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평화의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진실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226. 새로운 만남은 갈등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월과 더불어 우리는 모두 변하였습니다. 고통과 반목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공치사, 가식, 이중 발언, 은폐, 현실을 감추는 미화된 태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격한 대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말할 때 명확하고 숨김없는 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 기억에 대하여 참회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참회는 자신의 후회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사건의 역사적 진실만이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이의 선을 위한 새로운 종합을 추진하는 항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화의 여정은 지속적인 투신을 요구합니다. 평화의 여정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복수심보다 더 강한 공동의 희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인고의 노력입니다.” 되풀이되는 갈등에 대하여 콩고 주교들이 말한 대로, “서면 평화 협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발하고 있는 이 위기의 근원들에 대한 진실의 요구를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진척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